본래 '한 쌍' 협시불, 과학 연구로 찾다





國博 소장 소조보살입상 조사 결과 확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새로운 과학적 기법을 동원한 연구로 본래 '한 쌍' 이었던 협시불상이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불교조각 조사 사업의 최신 성과를 담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 보고 3〉을 발간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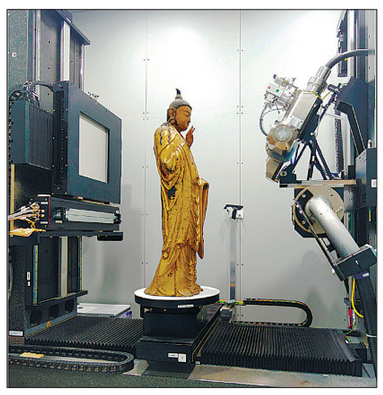
해당 보고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2점의 건칠보살좌상을 비롯한 총 4점의 불상에 대해, 2017년부터 2년간 실시한 조사 결과와 2012~2018년 진행한 보존처리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과학적 조사 기법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된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과학 기자재로 컴퓨터 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을 문화재 조사 방법으로 새롭게 도입했고, 이번 불상들의 조사에 적극 활용됐다. 이를 통해 컴퓨터 단층촬영을 실시 후 컴퓨터 화상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3D, 좌우 종단면, 앞뒤 종단면의 상세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3차원 관찰도 이뤄졌다.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소조보살입상(덕수2209)' 이다. '소조보살입상(덕수2209)' 에 대한 CT촬영 결과 머리부터 정강이까지 하나의 목재로 심을 만들었고, 그 이하는 2단의 목재를 쌓아 완성했다. 머리는 절반으로 가르고 몸체 쪽은 등 뒤를 절개해 목재의 속을 파냈으며, 옷주름과 같은 세부는 점토를 올리거나 목심(木心)을 조각해 조성했다. 또한 불완전한 원목을 보완하고 목심을 연결하기 위해 총 66개의 못을 사용한 것도 촬영 결과 확인됐다.

'덕수2209' CT 촬영해보니
앞선 '덕수1780' 기법 유사
못 66개 사용해 원목 보완
연구 결과물 자료집 발간

연구진은 "촬영 결과 지난 2014년 발간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 보고 1〉에 수록된 '소조지장보살입상(덕수1780)' 과 크기와 양식, 제작기법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조보살입상(덕수2209)' 은 '소조지장보살입상(덕수1780)' 과 함께 협시보살로 조성된 관음불상으로 판단된다. 현존 사례가 많지 않은 조선 전기 보살입상이라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국박 소장 '소조보살입상(덕수2209)' 의 CT촬영 조사 모습. 국박은 CT촬영을 새로운 문화재 보존 기법으로 도입했다.

건칠불상의 기법을 확인할 수 있던 것도 중요한 성과다. 우리나라 전통 건칠불상은 표면에 건칠을 바르기 전 내부의 원형 소조상을 옷주름까지 거의 완전한 형상으로 제작하고 그 위에 삼베와 칠을 바른 뒤 내부의 흙을 제거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이 때 몸 안에는 보조 지지대 등을 쓰지 않고 공간을 비웠다. 이번 단층촬영 조사 결과 "이 같은 방법이 뚜렷하게 확인됐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나아가 표면에 있는 장신구와 영락, 끈 등만을 따로 만들어서 부착한 점과 삼베와 옻칠의 양을 형태에 맞추어 섬세하게 조절한 점 등이 상세하게 파악됐다.

대형 건칠보살좌상(덕수5547) 조사에서는 눈동자를 다른 재질인 석영으로 끼워 넣는 방식과 귀와 손 등을 별도의 나무로 만들어 못 대신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는 등의 전통 방식이 확인됐다. 일본 도쿄 오쿠라슈코칸(大倉集古館) 소장의 건칠보살좌상과 한 쌍으로 제작됐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조사에 대해 박물관 연구진들은 "이번 조사에 도입된 컴퓨터 단층촬영 조사 결과로 최근 활발해진 중 · 근세 불상과 복장물에 대한 제작기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향후 전시와 한국 불교조각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되는 보고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http://www.museum.go.kr)에 공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조사된 국박 소장 '소조보살입상(덕수2209, 사진 왼쪽)' 과 지난 2014년 조사된 '소조지장보살입상(덕수1780, 사진 오른쪽)' 의 모습. CT조사 등을 통해 양식과 제작기법이 유사해 두 보살상이 협시보살로, 한 쌍으로 조성됐음이 확인됐다.

만해 '未完 유마경' 다시 세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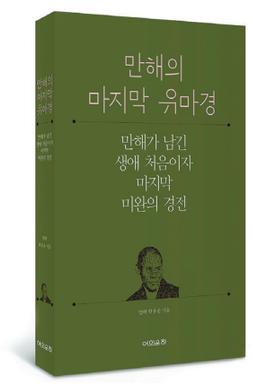
만해 번역한 〈유마경〉 발굴
잡지 연재 · 전집 육필을 묶어
全 14품 중 6품까지만 번역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만해 한용운 스님이 번역한 〈유마경〉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만해의 마지막 유마경〉〈사진〉은 만해 스님이 만년에 번역했지만 미완으로 그친 〈유마경〉을 담아내고 있다.

실제 이 책은 잡지 '불교' 1940년 2월호와 4월호에 실린 실우(失牛, 만해의 필명)의 〈유마힐소설경강의〉와 400자 원고지 총 148장 분량의 육필 원고를 모아 발간한 〈한용운전집(1973)〉에 실린 〈유마힐소설경〉을 저본으로 했다.

만해 스님은 1933년부터 〈유마힐소설경〉 번역을 시작했고, 이를 '불교' 지에 연재하지만 2회만에 중단됐다. 사후 발간된 전집에서는 연재 이후부터 제6부 사의품 일부까지만 육필원고가 실렸다. 미완이지만 만해 스님이 번역한 〈유마경〉이 하나로 묶여 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해 번역의 〈유마경〉은 1914년 발간된 〈불교대전〉과 달리 국한문 혼용임에도 한글의 어법이 두드러지게 많다. 때문에 〈불교대전〉은 현대어의 번역을 거쳐야 읽을 수 있지만, 〈유마경〉은 번역을 거치지 않고 꼼꼼히 정독하면 읽을 수 있다. 물론 불교 한문 읽기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수고로움은 더 깊은 〈유마경〉의 세계로 독자를 이끌어 낸다.

해제를 맡는 서재영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그 자체로 완성된 작품으로 평가받듯 만해의 미완의 〈유마경〉도 완결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마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절반의 작업만으로도 충분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생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마경〉은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경전이다. 만해의 〈유마경〉은 중생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보살의 삶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고구려 불교미술의 모든 것을 만나다

한국미술사硏, 3~6월 미술사 강좌

한반도 불교 수용과 고구려 불교 미술의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오는 3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연구소에서 박물관대학 2019년 1학기 미술사 강좌를 개최한다.

'불교미술의 수용과 고구려의 강인한 미술' 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총 11회에 거쳐 고분벽화나 불상, 각종 공예품을 통해 고구려 미술의 전모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강사로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동국대 명예교수)을 비롯해 김정희 원광대 교수, 고승희 동국대 교수, 주수완 고려대 교수, 최종택 고려대 교수, 유미나 원광대 교수, 정병모 경주대 교수, 최응천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02)3673-3426 신성민 기자

불교문화재 소장처 관리자 교육 연다

불교중앙博, 4월 8~9일

불교문화재를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찰과 단체들을 위한 관리 교육이 시행된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송하)은 오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자 · 관리자 유물관리교육' 을 실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사업은 불교 문화재 소장, 관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대상은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 및 관리자 스님 △2019년 문화재 다량 소장처 경상경비 지원대상관 △승려연수교육 대상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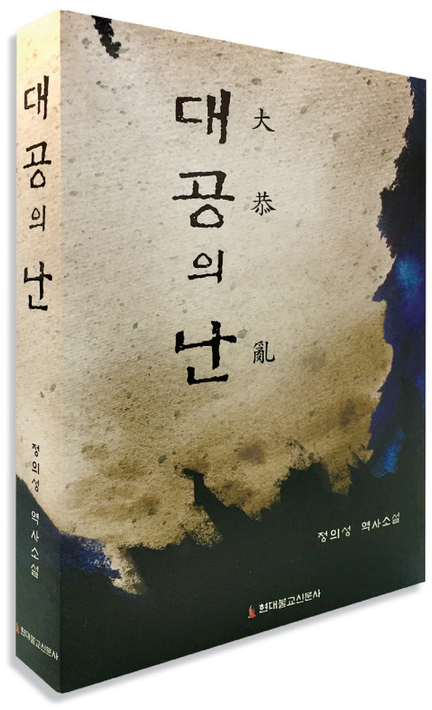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이론 전반에 관련해 이뤄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세계유산의 개념과 제도(신희권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불교미술과 세계유산(정병삼 숙명여대 교수) △사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손영문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 보존환경 관리(김수철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문화재 안전 관리 방법 등이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